

영 국

Dearing Report와 영국의 고등교육연구

김기국¹⁾

영국 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야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Dearing Report가 발간된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처음 발간될 때만 하더라도 근 30년만에 처음으로 영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학계와 과학기술계로부터 전폭적인 관심과 환영의 대상이 되었던 Dearing Report는, 이제오서는 모두로부터 골치아픈 존재로 낙인찍힌분위기가 역력하다. 이같은 분위기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Dearing Report가 제안한 개혁조치들이 자칫고등교육연구 쪽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예산의 규모를 대폭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난 이후 부터이다.

문제의 첫 발단은 신생 노동당 정부가 올 연말에 발간할 예정인 교육백서에 담길 내용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표제 하에 노동당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골격이 담겨질 이번 백서에서 향후 더욱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될 사안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계의 걱정은 Dearing Report에서 제안된 "Research Council들은 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할 때 overhead cost

<표> Research Council 과학예산의 용도별 규모

(단위: 백만 파운드)

용 도	1995~96년	1996~97년
〈고등교육부문〉		
-research grants	499.8	507.6
-studentships	137.0	139.1
-fellowships	23.2	23.6
〈Research Council 산하 연구소〉		
-institutes	262.8	266.8
-facilities	85.2	86.5
〈기타 R&D지출〉		
-international subscriptions	134.7	136.8
-other	60.1	61.0
〈행정비용〉	58.7	59.7
합 계	1261.5	1280.9

를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백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Research Council이 고등교육계에 지원하는 연구비 규모가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Research Council의 과학예산 12억 8,000만 파운드(1996~97 회계연도 기준) 가운데 고등교육계에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는 전체의 52.3%인 6억 7,000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표> 참조).

애초에 영국의 과학기술계는 Dearing Report의 발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

로는 고등교육부문의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지원의 확충 및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서, 정부가 고등교육부문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Dearing Report에서 고등교육부문의 연구활동 진흥을 위한 대책이 피상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말자, 실망감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계에 경종을 울린 것은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overhead cost 처리방식의 변경 방침이었다. 현재 Reasearch Council들은 고등교육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overhead cost는 총액의 45%까지만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고등교육기금 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 HEFCs)의 지원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Dearing Report의 제안대로 Research Council들이 overhead cost를 100% 부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HEFCs는 현재보다 많은 자금을 건물이나 장비 등의 기초시설(basic facilities)에 대한 지원 용도로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Research Council들의 입장에서 추가부담분만큼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원 프로그램 전체의 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있다. 현재 Research Council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대략 1억 6,500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수백명의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들의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전체 지원 프로그램 20%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가 빨리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Reasearch Council들의 지원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를 한층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노동당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각 부처들로부터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마구잡이로 흘러 나오고 있어 사안의 불확실성만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당 정부는 Dearing Report의 제안을 수용할 예정인지의 여부에 관해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각 부처의 각료급 인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선 과학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무역산업부(DTI)의 Margaret Beckett 장관은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의 과학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수립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고등교육담당 minister인 Tessa Blackstone은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우리의 과학기반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등교육부에서 이미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과학 및 공학 전공 학생들의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주장한다. David Blunkett 교육차관도 일부 대학교수들의 경우 강의가 아닌 연구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논란은 대학들로 하여금 닥쳐오는 한파를 느끼고 각오를 다지게끔 하는데 충분한 자극제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정부가 이제까지 잔뜩 죄고 있던 돈주머니 끈을 늦출 기미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법으로 기금의 이전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까지 HEFCs가 부담하던 몫 만큼의 기금을 HEFCs로부터 Research Council로 이전하자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언뜻 그럴 듯해 보이는 이 아이디어는, 연구원들 스스로도 과연 적절한 처방책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이제까지 대학들의 시설 개체 및 개선을 위한 HEFCs의 지원 규모·필요 수준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했음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대학들의 시설 개체 및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최소한 2억 500만 파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기금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Research Council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예 포기하고 자신들의 산하 연구소에 대한 지원에만 전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이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Research Council과 대학간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들로 구성되는 영국의 과학기반(Science Base) 전체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Research Council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개별 대학들의 연구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들의 연구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움직임도 인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학위과정을 끝내고 연구원이라는 직종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젊은 연구원들이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Research Council들의 입장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숫자 자체를 줄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고등교육계 전체로 본 연구기회(research opportunity)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로 인해 자칫 우수한 연구인력들의 해외유출(brain drain)을 자극함으로써, 영국의 과학기반 자체가 뒤흔들리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요즘같은 과학기술의 세계화시대에, 희망이 없는 곳에 남아있을 인재는 없을 것이 당연한 까닭이다.

주석1) 총괄연구실, 선임연구원(Tel: 02-250-3074)